

등록번호-종량, 라00042 부록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6년 05-06월
VOL.

기도월력

287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 히브리서 13:3 -



Open Doors

인간의 타락으로 고통을 받는 무수한 이주민과

5월 1일 금요일 / 이란 (10위)

전쟁과 혼란 속에 신음하는 이란 땅에 주님의 평화를 간구합니다. 군사적 충돌이 속히 종식되어 무고한 희생이 멈추게 하시고, 공포와 절망이 뒤덮인 그곳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신앙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위협받고 소외된 이란 성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랜 억압과 굶핍으로 고통받는 이란 국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어, 그 땅에 진정한 자유와 존엄, 그리고 복음의 소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5월 2일 토요일 / 카메룬 (37위)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고향을 떠나 황무지에 새 터전을 잡은 넵구이 (Njengui) 마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예전의 삶은 무너졌으나 믿음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의 결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5월 3일 주일 / 이란 (10위)

전쟁 전부터 인플레이션과 빈곤으로 힘들었던 이란 전역은 전쟁으로 생계 수단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식료품 가격은 폭등했고 의약품 부족과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회는 실질적인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왔으나, 이제 그 필요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성도들과 지역 사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시고, 위기 속에서 교회가 지혜와 자원을 얻어 많은 이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월 4일 월요일 / 스리랑카 (65위)

시댁의 모진 학대와 성경이 불타는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신한 17세 소녀 수니샤(가명)를 위해 기도합니다. 폭력과 살해 위협으로 위협하는 남편으로부터 수니샤와 어린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 궁핍함 속에 있는 이들 가족의 필요를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돕는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지켜주시며, 수니샤의 굳건한 믿음을 통해 박해하는 이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5월 5일 화요일 / 쿠바 (24위)

현재 쿠바는 극심한 경제난과 연료 부족으로 하루 20시간 넘는 정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규모 5.8의 지진까지 겹쳐 1,100만 국민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식료품과 의약품 고갈로 아이들이 굶주리고 병원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현지

교회들은 이웃을 섬기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쿠바 땅에 일용할 양식과 필수 물자가 속히 공급되고, 전력 체계가 복구되어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며,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다하는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월 6일 수요일 / 팔레스타인 (63위)

성지의 신앙 유산을 이어가는 팔레스타인 'DNA' 팀의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갈등한 청년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되고, 온라인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삶과 교회를 잇는 튼튼한 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길을 잃은 중동의 수많은 청년이 주님 안에서 참된 소속감과 소망을 찾게 하시고, 특별히 사역을 이끄는 팀원들에게 지혜와 창의력을 더하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중동 전역에 복음의 빛이 비치길 기도합니다.

5월 7일 목요일 / 이라크 (18위)

과거 ISIS(이슬람 국가)의 공격으로 수많은 도서관이 불타고 파괴되었던 이라크 니네베(Nineveh) 평원과 여러 도시에서, 최근 14개의 교회 도서관과 서점이 재건되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신앙의 보물창고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을 넘어,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토론하며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소중한 신앙 공동체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다음 세대들이 지적·영적으로 성숙해져 이 땅의 무너진 신앙 유산을 굳건히 세워가며, 더 많은 영혼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월 8일 금요일 / 시리아 (6위)

최근 시리아 정부가 수도 다마스쿠스의 기독교인 거주 지역 상인에게 주류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등, 국민에게 이슬람식 생활 방식을 강요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독교 공동체를 고립시키려는 이슬람화 가속화의 신호탄으로 분석되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땅에 종교와 신념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회적 혼란이 멈추며,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월 9일 토요일 / 스리랑카 (65위)

스리랑카의 17세 소녀 수니샤(Sunisha)는 불교 신자인 남편으로부터 성경이 불태워지고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니샤는 생명의 위협을 피해 7개월 된 아기와 함께 친정으로 피신하였으나, 여전히 남편의 보복과 살해 협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돕는 현지 목회자 또한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수니샤와 아기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시련을 이길 지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월 10일 주일 / 예멘 (3위)

현재 예멘에는 50여 명의 성도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지속되는 전쟁과 치안 불안으로 가족 면회마저 중단되어 수감자와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으나,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긴밀히 연합하며 사역의 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체포된 모든 성도가 감옥 안에서 고난을 이길 새 힘을 얻고 고문과 학대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도하며, 중단된 면회가 속히 재개되어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라마단 이후 간절히 바라는 석방의 기적이 예멘 땅에 속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11일 월요일 / 라오스 (28위)

라오스 북부 크무(Khmu) 부족의 하이(Hai) 씨와 램(Lam) 씨 가족이 신앙을 이유로 집과 농장이 파괴되고 식량을 탈취당하는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를 이끄는 이들은 당국의 협박과 주민들의 감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두 가족에게 하늘의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5월 12일 화요일 / 필리핀

필리핀 남부에서 신앙의 기동으로 살아온 프리아(Pria)가, 출소 후 다시 마약에 빠진 남편에 의해 집 안에 격리되어 예배와 외부 출입이 금지되는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를 이끌던 그녀는 이제 남편의 감시 속에 이슬람 전통만을 강요받으며 여동생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프리아와 아홉 자녀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경험되길 기도합니다.

5월 13일 수요일 / 인도 (12위)

최근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십 대 기독교인 소년의 장례가 마을 주민들의 방해로 거부당하고, 유가족들이 아들의 시신을 메고 떠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은 신앙을 포기하라는 강요와 묘비에 종교적 상징을 새기지 말라는 부당한 서약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나, 마을의 교회는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강제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유가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단한 예배 처소가 속히 열리고 당국이 공정하게 소수 종교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14일 목요일 / 인도네시아 (59위)

인도네시아의 콘텐츠 제작자이자 희식자인 데디 사푸트라(Dedi Saputra)가 지난 2월 18일,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강제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변호인과의 접견조차 제한된 채 구금되어 있으며, 이슬람 율법이 엄격한 아체(Aceh)주로 압송되어 불리한 재판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데디 사푸트라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시며, 모든 법적 절차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 멕시코 (30위)

최근 멕시코에서 마약 밀매 조직의 보복 테러로 전국 20개 주에서 총격과 방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예배가 전면 중단되고 성도들이 고립되어 있으며, 일부 지도자들은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포 속에 있는 멕시코 성도들의 고립된 가정에 필요한 물자가 공급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끝까지 용기를 지키며, 당국이 속히 질서를 회복하여 안전한 신앙생활이 재개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 중앙아시아

타미나(Tahmina)는 무슬림 가족의 장례식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친척들에게 거센 모욕과 저주를 받았으며, 가문 공동체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오직 구원의 확신으로 인내하며 가족의 회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타미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희생을 통해 완악한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5월 17일 주일 / 아프가니스탄 (11위)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교육과 직업,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극심한 인권 침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 여성들은 발각될 경우 처형될 위험이 커, 신앙을 철저히 숨기거나 이웃 나라로 피신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어렵게 중앙아시아 등지로 피신한 난민 성도들 역시 불안정한 체류 신분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추방의 공포라는 '세 겹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식 난민 지위를 얻어 안전을 보장받고,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의료 지원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5월 18일 월요일 / 콜롬비아 (47위)

콜롬비아 북부 코르도바(C rdob)주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와 댐 범람으로 14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많은 가족이 전파되는 등 심각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긴 수많은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신속한 구호의 손길이 닿으며, 현지 정부와 교회들이 지혜를 모아 이 재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 / 필리핀

최근 필리핀 남부의 한 취약 지역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40채의 가족이 전소되고 60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본 이들 중에는 이미 신앙 때문에 고립과 핍박의 삶을 살아가던 13가구의 박해받는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트라우마에 빠진 성도에게 양식과 생필품이 신속히 공급되고, 이들이 잿더미 속에서도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속히 안전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 카자흐스탄 (40위)

최근 카자흐스탄 내 기독교 박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지 성도 아밀(Amil)과 그가 출석하는 교회가 기독교 서적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당국에 고발당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마음 모아 기도한 결과, 감사하게도 이번 재판은 '주의' 조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교회는 당국의 밀착 감시를 받게 되며, 재발 시 교회 폐쇄와 지도자 투옥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마주하게 됩니다. 위협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아밀 성도와 카자흐스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안전이 지켜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 / 인도 (12위)

인도 마니푸르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2년간 투병하던 20세 쿠키-조(Kuki-Zo) 여성이 신체적 합병증과 정신적 고통 끝에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법 체계의 무관심 속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전히 폭력과 차별 속에 신음하는 마니푸르의 여성들과 이재민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 정부가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며, 분열된 공동체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지속 가능한 평화가 속히 정착되길 기도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 / 에라이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에 납치된 리아 샤리부(Leah Sharibu) 성도가 억류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14세였던 리아는 이슬람 개종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홀로 남겨져 지금까지 포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아 성도가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이지리

아의 모든 납치 피해자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길 기도합니다.

5월 23일 토요일 / 멕시코 (30위)

멕시코의 북동부에서 사역하는 베아트리스 (Beatriz) 선교사는 이주 초기, 이웃의 독살로 반려견을 잃고 어린 딸마저 생명을 위협받는 혹독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지를 지키며, 상처 입은 현지 여성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2%만이 주를 아는 이 척박한 땅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베아트리스 가족의 안전과 현지 기독교 여성들이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월 24일 주일 / 미얀마(14위)

미얀마 사가잉 지역을 강타한 지진은 수많은 파괴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닫혀있던 복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슈아(Joshua) 목사와 성도들은 지진 피해를 본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나누고 트라우마 치유를 돕는 등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이전에 기독교를 배척하던 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성도들이 재난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 베트남 (55위)

최근 복음을 받아들인 63세의 응옥(Ngoc) 성도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마을 지도자들과 폭도 20명에 의해 정든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공동체의 박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그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딸의 집에서 머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응옥 성도에게 주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응옥 성도의 남편과 다른 가족들이 그녀의 신앙을 존중하며, 속히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5월 26일 화요일 / 라오스 (28위)

라오스 남부의 쿤·라노이 부부는 개종했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귀신'이라 저주받으며, 우상 숭배 강요를 거절한 끝에 지난해 10월 다섯 자녀와 함께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현재 전기도 없는 깊은 숲속 농막에서 생활 중이며, 마을 이장의 금령으로 인근 상점에서 생필품조차 사지 못하는 극심한 고립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이 중단된 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는 이 가정에 안전한 거처와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길 기도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 / 말리 (15위)

말리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장과 군부 독재의 감시 속에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 방화와 납치가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개종한 성도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무법지대 속에서 고통받는 말리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또한 이 땅에 평화와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 니카라과 (32위)

지난 3월 18일, 니카라과 지노테페에서 카를로스 알베르토(Carlos Alberto P rez Rodriguez) 목사가 성도 심방 후 귀가하던 중 괴한의 흉기 습격으로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치안 불안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범인이 속히 검거되어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사명을 이어가는 니카라과의 모든 사역자가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 리비아 (9위)

내전과 무법 상태가 지속되는 리비아에서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슬람법(샤리아)에 따른 당국의 압박과 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폭력, 그리고 이주민 구금 시설 내에서의 조직적인 차별과 성폭행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리비아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 베네수엘라 (69위)

경제 위기와 독재 정권의 압박 속에서 베네수엘라 목회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아들이 자립하여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씨앗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센수, 빵집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공동체의 빛이 되고 있는 69명의 사역자가 경제적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한 이들의 사업체가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월 31일 주일 / 파키스탄 (8위)

파키스탄은 인구의 95% 이상이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로, 기독교인은 약 1.9%에 불과한 연약한 소수자입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기독교인을 겨냥한 '신성모독법' 허위 고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 습격과 가옥 파괴 등 잔인한 군중 폭력으로 이어져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짓 고발로 인해 억울한 고통을 당하

는 현지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신성모독법이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6월 1일 월요일 / 방글라데시 (33위)

정치적 격변기를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인구의 0.5%인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와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토지를 강탈당하거나 허위 기소로 고통받는 성도, 특히 유괴와 강제 결혼의 위험에 노출된 여성 성도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6월 2일 화요일 / 콜롬비아 (47위)

콜롬비아 북부 코르도바(C rdoba)주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와 댐 범람으로 주거지의 80%가 침수되고 14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쏟아진 한 달 분량의 비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진흙더미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닿기를, 그리고 식수와 식량 등 구호의 손길이 끊이지 않아 현지 주민과 교회 공동체가 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6월 3일 수요일 / 아프가니스탄 (11위)

아프가니스탄 출신 아리아나(Ariana)는 개종 시 가족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극심한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난민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리아나가 강제 송환의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4일 목요일 / 브루나이 (50위)

이슬람 절대 군주제 국가인 브루나이에서 기독교인(인구의 11.5%)들이 샤리아법 시행과 국가적 감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학교에서 비무슬림 학생에게도 이슬람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신앙의 자유가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종 성도를 향한 가족과 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브루나이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 파키스탄 (8위)

파키스탄에서는 인구의 약 1.9%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 '신성도독법'에 따른 허위 고발과 군중 폭력의 위협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성도들이 가난과 차별로 인해 벽돌 가마 등에서 대물림되는 채무 노동의 굴레에 갇혀 있으며, 기독교인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와 강제 개종, 강제 결혼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하는 등 박해가 일상화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6월 6일 토요일 / 인도네시아 (59위)

인도네시아의 시티(Siti)와 솔레(Soleh)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성도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이들은, 그곳에서 비밀 가정교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박해를 딛고 일어서 이 가족이 안전하게 생계를 이어가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핍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7일 주일 / 나이지리아 (7위)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수많은 성도가 고향을 잃고 트라우마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방의 압박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현지 목회자와 실행팀 성도가 생계 지원 사업을 통해 삶의 터전이 다시 세워지며, 상처 입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6월 8일 월요일 / 카자흐스탄 (45위)

카자흐스탄의 박해 순위는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했지만, 현장의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알마티 지역의 한 교회는 재활센터와 유치원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겨왔으나, 최근 이슬람 공동체와 당국의 압박으로 시설 물수 위기와 폐쇄 명령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현재의 위기를 잘 이겨내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의 문을 넓혀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9일 화요일 / 키르기스스탄 (40위)

최근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종교법을 개정하여 교회 등록 요건을 500명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포교 활동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소규모 교회가 불법 단체로 몰릴 위기에 처했으며, 개종 성도에 대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폭력

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교회가 이 엄중한 시기를 지혜롭게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성도에게 평안함과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6월 10일 수요일 / 부르키나파소 (16위)

부르키나파소는 계속되는 군사 쿠데타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의 세력 확장으로 인해 기독교인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장 단체가 조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 기관을 강제 폐쇄하는 가운데, 약 2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으며 특히 여성과 아이들은 납치와 강제 징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하여 고립된 성도들과 폭력의 공포 속에 있는 부르키나파소의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 카메룬 (37위)

카메룬 최북단 지역에서는 보코하람 등 이슬람 무장 단체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인이 깊은 트라우마를 겪으며 정든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자립 그룹(SHG) 사역을 통해 삶을 다시 세워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를 온전히 치유받고 지역사회의 소망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 에리트레아 (5위)

'아프리카의 북한'이라 불리는 에리트레아에서 히워트(Hiwot) 비밀 예배 중 체포되어 10년 동안 투옥되었습니다. 신앙을 부인하라는 가혹한 매질과 회유 속에서도 옷 속에 성경 조각을 숨겨 읽으며 믿음을 지켜낸 그녀는, 이제 석방되어 감옥에 남겨진 1,000여 명의 성도와 에리트레아의 종교 자유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는 이 땅의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하며, 복음의 빛이 에리트레아 전역에 비치기를 기도합니다.

6월 13일 토요일 / 멕시코 (30위)

멕시코 오아하카(Oaxaca)주의 알리시아(Alicia) 가정은 전통 종교 관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식수와 전기가 끊기는 등 극심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현재는 벌금을 낸 뒤 '불안한 평화' 속에 살고 있지만, 예배와 전도는 여전히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이들을 위해 기도 수첩을 쓰며 용서를 실천해 온 알리시아가 두려움 없이 꿈을 키워 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박해자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단순한 공존을 넘어 참된 신앙의 자유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6월 14일 주일 / 말리 (15위)

한때 종교적 관용의 땅이었던 말리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장으로 인해 박해 순위 15위의 위험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는 100개 이상의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파괴되었으며, 성도들은 납치와 살해 위협 속에 정든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개종자들과 강제 결혼의 위험에 처한 여성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말리 교회들이 이 환난의 때를 잘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월 15일 월요일 / 말레이시아 (51위)

2017년 괴한에게 납치되어 실종된 말레이시아 레이먼드 코(Raymond Koh) 목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마침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개입을 인정하며 수사 재개와 거액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9년의 외로운 싸움에서 승리한 수잔나(Susanna) 여사와 가족들이 속히 목사님의 생사를 확인하고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 / 베네수엘라 (69위)

베네수엘라의 살인청부업자였던 힐데르(Hilder)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현재는 죄수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삼엄한 감시와 범죄 조직의 위협, 그리고 극심한 물자 부족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그는 양계와 농사를 통해 스스로 사역비를 조달하며 갇힌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힐데르 목사와 현지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월 17일 수요일 / 시리아 (6위)

2025년 6월 교회 폭탄 테러로 가족 7명을 잃고 본인도 중상을 입은 엘리아스(Elias)는 "우리 신앙은 비누 거품이 아니라 반석 위에 있다"라며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참상을 목격한 8살 아들 이브라힘(Ibrahim)이 트라우마에서 치유되고, 전쟁과 정권 교체의 혼란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시리아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월 18일 목요일 / 몰디브 (19위)

세계적인 휴양지 몰디브는 기독교인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자국민의 기독교 개종은 불법이며, 성경 소지조차 투옥 사유가 됩니다. 최근 정

부의 감시와 인터넷 차단이 강화되어 성도들의 고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숨어 예배하는 몰디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억압적인 법률과 사회적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 / 소말리아 (2위)

소말리아 지하 교회 성도 14명 중 12명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는 참혹한 비극 속에서도, 망명 중인 아웨이스(Aweis)는 소말리아어 성경 번역과 제자 양육 사역을 멈추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1993년부터 세계 박해 순위 최상위권을 유지해 온 척박한 소말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박해자들조차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6월 20일 토요일 / 팔레스타인 (63위)

전쟁의 비극이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는 이제 채 1,000명도 되지 않는 적은 수의 성도만이 남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팔레스타인 청년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성경 읽기 챌린지'를 열며 방황하는 또래들에게 말씀의 위로를 전하고 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개종한 비밀 신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가자 지구의 남겨진 교회가 복음의 등불을 끝까지 밝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월 21일 주일 / 사우디아라비아 (13위)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현대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회 건물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종교적 불모지입니다. 2025년에는 외국인 성도들이 가정 예배 중 체포되어 추방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본토 개종자들은 발각 시 사형이나 명예 살인의 위협 속에 철저히 신앙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주 노동자 성도들과 숨어 있는 사우디 형제자매들이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월 22일 월요일 / 콜롬비아 (47위)

2026년 2월, 콜롬비아 나리노(Nari o)주 원주민 공동체에서 13가정의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라는 강요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집과 농토를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현재 이들은 식수와 위생 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임시 거처에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고난 중에도 참된 평화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6월 23일 화요일 / 베트남 (55위)

베트남 북부의 60대 여성성도 세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원 남편과 자녀로부터 구타와 감금 등 심각한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명절에 매를 맞고,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계신다"라며 가족의 회심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박해자가 된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고령의 성도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월 24일 수요일 / 예멘 (3위)

예멘의 자이드(Zaid) 형제는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너를 찾아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이 발각되어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집에서 쫓겨났지만, 그는 이제 예멘 4천만 인구를 위해 '4만 개의 가정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품고 제자 양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얻은 자이드 형제가 안전하게 사역하며 예멘 땅 곳곳에 구원의 등불이 켜지기를 기도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 / 쿠바 (24위)

허리케인이 쿠바를 덮친 지 18개월이 지났지만, 현지 성도들은 여전히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습니다. 교회와 집이 무너지고, 한 달 수입 54달러로 네 식구가 살아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쿠바의 사역자들은 "이것이 섬김의 기회"라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사역자의 긴급 구호 활동을 통해 쿠바 전역에 복음의 희망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6월 26일 금요일 / 나이지리아 (7위)

2026년 3월 29일 종려주일 저녁, 나이지리아 조스(Jos)의 기독교인 밀집 지역에서 무장 괴한들의 무차별 총격으로 성도들을 포함한 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성도들이 희생되는 참극 속에 도시 전체에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주간의 슬픔이 부활의 소망과 평화로 바뀌며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주시길 기도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 콜롬비아 (47위)

과거 콜롬비아 최대 반군 조직이었던 FARC(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전직 지도자들이, 내전 당시 1만 8천 명이 넘는 아동을 강제 징집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4,000여 명의 아동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현재도 취약 지역에서는 아동 징집이 계속되어 많은 가정과 교회가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콜롬비아의 다음 세대를 보호하시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이 땅에 복음 안에서 참된 정의와 화해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6월 28일 주일 / 나이지리아 (7위)

지난 3월 16일, 나이지리아 마이두구리(Maiduguri)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잦아들었던 자살 폭탄 전술이 다시 등장하고 테러 단체들이 연합하는 등 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해졌습니다. "개종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라"라는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의 소망을 놓지 않는 마이두구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속히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6월 29일 월요일 / 방글라데시 (33위)

방글라데시 사역자 모니룰(Monirul) 가정이 자택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괴한들이 던진 폭발물에 맞아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5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부흥회를 인도한 직후 발생한 계획적인 테러로 보이며, 현재 아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축된 현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상처를 입은 사역자 가정이 참된 위로를 얻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 / 중국 (17위)

중국 남서부 소수민족 지역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돕는 배필'이라는 주제의 수련회가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중된 사역의 짐과 외부의 압박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온 20여 명의 자매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소중한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남편과 함께 복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에서 월간 『오픈도어』 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전화하시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658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5,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